

**2016학년도 송실대학교 수시 신입학
논술고사 문제지 (2교시:인문계열)**

지원학과(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 주의사항(문제 1-2번 공통)

- ① 답안 작성 시 답란과 해당 문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함(이를 어길 경우 '0'점 처리함).
- ② 답안지에 제목과 소제목을 달지 말 것.
- ③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지 말 것.
- ④ 제시문의 일부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 표시(" ")를 할 것.
- ⑤ 제시문의 문장을 직접 인용하는 경우 외에는 본문의 일부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 ⑥ **검정색 필기구(연필, 볼펜, 사인펜 등)**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할 것(그 외의 색필기구 사용은 부정행위에 해당함).

문제 1 <보기>의 화자가 겪은 갈등의 내용을 밝히고,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그가 도달한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60점)

<보기>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데 섞기로 결정했다. > 우리는 안 지 10년, 함께 산 지 6년, 결혼한 지 5년 된 사이였다. 이제 우리의 어울리지 않는 커피 잔들도 우호적으로 공존하게 되었다. 우리는 티셔츠도 바꾸어 입고, 여차하면 서로의 양말을 갖다 신기도 한다. 우리가 모은 레코드들은 이미 오래 전에 무사히 서로 다른 종족 간 혼인에 성공하여, 예컨대 나의 조스캥 데프레(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작곡가)의 모테트(종교 합창곡의 일종)들은 조지의 『제퍼슨 에어플레인(1960년대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록밴드)의 최악의 선곡집』 곁에서 환심을 사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결합이 양쪽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의 책들은 계속 별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 책은 주로 우리 아파트의 북쪽 끝에, 그의 책은 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었다. 나의 『빌리버드』가 그의 『모비딕』(둘 모두 19세기 미국 작가 허먼 멜빌의 작품)으로부터 10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데 일찌감치 합의를 했건만, 실제로 둘을 합쳐 주는 일에는 우리 둘 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우리가 두 멜빌을 나란히 두는 일을 망설인 데는 우리 성격의 본질적 차이도 작용을 했다. 조지는 병합파다. 나는 세분파다. 그의 책들은 민주적으로 뒤섞여, 문학이라는 포괄적인 깃발 아래 통일되어 있었다. 어떤 책은 수직으로, 어떤 책은 수평으로, 심지어 어떤 책은 다른 책 뒤에 꽂혀있기도 했다. 내 책들은 국적과 주제에 따라 소국들로 분할되어 있었다.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하나 낳은 뒤, 조지와 나는 마침내 우리가 장서 합병이라는 좀더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이를 준비가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는 곧 난관에 부딪혔다. 내가 영국 문학은 연대순으로, 그러나 미국 문학은 저자 이름순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나의 논리는 이런 식이었다. 우리의 영문학 책들은 6백 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대순으로 꽂아 놓으면 우리 앞에서 문학의 넓은 지평이 펼쳐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작가들은 한몸이다. 그들을 분리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산가족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조지는 굴복하고 말았는데, 진심으로 내 논리에 감복했다기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 셰익스피어(16세기 중반에서 17세기 초반을 살았던 영국의 극작가 겸 시인) 책들을 한 책꽂이에서 다른 책꽂이로 옮기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작품들은 꼭 연대순으로 꽂아야 돼!”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만 일이 터지고야 말았다.

“그러니까 한 작가 내에서도 연대순으로 가잔 말이야?” 그는 입을 떡 벌렸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쓴 연도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도 않았잖아!”

나는 밀리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폭풍』보다 먼저 썼다는 것은 알잖아. 나는 그 사실이 내 책꽂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기 바래.”

조지는 나와 결혼해 살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때만은 달랐다고 했다.

우리의 장서들은 이제 흠 하나 없는 질서를 갖추게 되었으나 웬지 약간 답답했다. 조지가 내 인생에 들어오기 전의 내 삶처럼. 그래서인지, 몇 주가 지나면서 보일 듯 말 듯 조지의 방식이 다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는데, 내 쪽에서도 그것이 꼭 반갑지 않은 것만은 아니었다. 새집의 기초를 구획하는 반듯반듯한 줄들이 바람에 실려 온 잡초 몇 포기과 쓰러져 있는 세발자전거에 의해 누그러지듯이, 우리의 흠 하나 없는 새로운 체계도 서로 밀접한 동맹을 맺고 있는 엔트로피의 힘(정돈된 상태가 자연적으로 무질서한 상태로 가려는 경향)과 남편의 힘에 의해 누그러졌다. 우리 침대맡의 탁자는 새로 들어온, 정리되지 않은 책들의 무게 때문에 가운데가 처지기 시작했다. 셰익스피어는 다시 뒤죽박죽이 되었다. 어느 날 어떻게 된 일인지 『일리아스』, 『로마제국 쇠망사』(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저서)가 “친구와 친척” 칸에 비집고 들어가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확실한 물증을 들이대는 나에게 조지가 집게손가락에 가운데손가락을 겹치며 하는 말, “기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친한 사이였거든.”

이렇게 나의 책과 그의 책은 우리 책이 되었다. 우리는 진정으로 결혼을 한 것이다.

<뒷면에 계속>

[가] 정주(定住)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야생 짐승에게는 둥지가 있고, 가축에게는 우리와 있고, 마차는 헛간에 들어가고, 자동차는 차고에 들어갑니다. 정주는 오로지 인간만이 하는 것입니다. 정주는 기술입니다. 정주 기술은 삶을 사는 기술의 한 부분입니다. 집은 둥지도 아니고 차고도 아닙니다.

주거, 즉 사람이 정주하는 곳은 사람이 자리를 잡고 살기 전에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용 준비가 끝나는 그날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오늘날의 상품과는 판판이였습니다. 천막은 날마다 고쳐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우고 걷고 했습니다. 농가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커졌다 줄었다 합니다. 먼 등성이에서 내려다만 보아도 아이들이 혼인했는지, 노인들이 죽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집짓기는 일생에서 일생으로 이어지며, 그 특별한 단계에서는 의례 행위가 벌어집니다. 주춧돌을 놓고 서까래를 얹기까지 여러 세대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어떤 지역이 완성에 다다른 일이 없습니다. 18세기까지도 서민 지역 주민은 건축가들이 슬쩍 끼워 넣으려는 개선안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켜 자신의 정주 기술을 지켜냈습니다. 정주는 E. P. 톰슨이 아주 잘 묘사한 도덕경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왕의 거리가 질서와 청결과 안전과 예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 사는 동네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짓눌러버렸습니다. 19세기에 거리마다 이름을 붙이고 집집마다 번호를 붙인 경찰에게 짓눌려버렸습니다. 하수 시설을 설치하고 사람 사는 곳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전문가들에게 짓눌려버렸습니다. 정주는 시민이 차고와 텔레비전을 소유할 권리를 드높인 복지로 인해 거의 절멸했습니다.

정주는 건축가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것이 민중의 기술이기 때문만도 아니고, 건축가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과도처럼 끝없이 이어지기 때문만도 아니며, 단순히 생물학자나 시스템 분석자가 다룰 수 없을 만큼 섬세하고 복잡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똑같은 모습으로 정주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과 거주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인류학자의 용어를 빌리자면, 토착 건축은 토착어만큼이나 독특합니다.

오늘날 입주 공간의 소비자는 정주 능력의 많은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붕 밑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사실이 문화적으로 정의된 필요로 탈바꿈했습니다. 정주할 자유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건축된 공간 속의 일정 면적에 대한 권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배달을 이용하는 권한과 배달을 시키는 방법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에게 삶의 기술은 몰수됐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주 기술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료의 도움에 의지하기 때문에 고통을 견뎌내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 생각해본 적조차 없을 것입니다.

[나] 나는 자유주의자로 양육되었고, 민주주의, 즉 인간은 스스로를 치리(治理)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기본 신조를 줄곧 신봉해왔다. 혹시 이 말을 막연하거나 케케묵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뜻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두 가지 명제로 진술될 수 있음을 잠시 얘기해 줄 수 있다. 첫 번째 원리는 이렇다. 만민에게 공통된 것이 소수에게 고유한 특질보다 중요하다. 평범한 것은 비범한 것보다 가치 있다. 아니 비범한 것보다 더 비범하다. '사람'은 '사람들'보다 형편없고 별난 존재다. 인류 자체가 기적이라는 깨달음이, 경탄을 자아내는 그 어떤 권력, 지성, 예술, 혹은 문명보다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 두 다리를 가진 인간이 그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선율보다 가슴을 미어지게 하고 그 어떤 캐리커처보다 눈을 휘둥그레 하게 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한다. 죽음은 '굶주린 죽음'보다 심지어 비극적이다. 코가 달렸다는 것은 '매부리코'가 달렸다는 것보다 우스꽝스럽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리다.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들은 공동 소유이지 개별 소유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간단하다. 정치적 본능이나 욕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시(詩)에 빠지는 것보다 시적이다. 통치란 사랑에 빠지는 일과 같은 것이지 시에 빠지는 일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게 민주주의의 주장이다. 그것은 교회 오르간 연주, 고급 피지(皮紙)에 그림 그리기, 북극 발견, 공중제비돌기, 왕립협회 천문학자가 되는 일과 유사성이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재능이 특출한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치란 이와는 반대로 연애편지를 쓰는 일이나 코를 푸는 일과 비슷하다. 이런 일들은 비록 어설픈 때가 있다 하더라도 보통사람이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민주주의의 신념이란 이런 것이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것들, 가령 이성 간의 짝짓기, 어린 자식을 키우는 일, 국가의 법률 등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것이 내가 줄곧 신봉해 온 민주주의다.

[다] 역사가의 진실은 평론가의 진실과 동일하지 않다. 역사가는 과거의 어느 순간에 관하여 평론가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으며 또 알아야 한다. 평론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시대의 편견을 역사가보다 훨씬 더 많이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강조를 위해 부득이 과장하기 마련이다. 진정성(authenticity)의 진실은 정직성(honesty)의 진실과 다르다. 진정하다는 것은 다수가 그렇게 살라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고, 정직하다는 것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비(charity)의 진실은 비판(criticism)의 진실과 다르다.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을 끌어내자면 자비와 비판 둘 다 필요하지만, 이 둘은 동시에 실천할 수 없다. 짝을 이루고 있는 진실 모두를 어떤 궁극적인 형태의 진실로 환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한 쌍의 진실을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하나의 진실로 환원할 방법도 없다. 그러므로 진실의 추구는 여러 종류의 탐색을 수반한다. 이것이 다원주의다. 다원주의는 상대주의의 동의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말이다. 다원주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진실이 지닌 도덕적 현실을 받아들이지만, 이것들을 전부 단일한 가치로 측정하는 단일한 저울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다는 관념을 거부한다.

<다음면에 계속>

문제 2 <보기>의 (A)와 (B) 가운데 어느 쪽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지 지적하고 그 잘못된 내용과 원인에 대해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추론하시오. (800±80자, 40점)

<보기>

1960년대 후반은 미국에서 남녀평등의 개념이 널리 퍼져가던 시대이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청(A)은 버클리대학의 신입생 입학 원자료를 제공받은 후 아래의 <표1>을 제시하며 남녀 간의 합격률 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 <표1>을 보면 남녀 신입생의 합격률이 각각 52.0%와 39.3%로, 12.7%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합격자	합격자	합격률
남성 신입생	1291	1400	52.0%
여성 신입생	1113	722	39.3%

<표1> 샌프란시스코 교육청 입학 자료

그러나 버클리대학 입학처(B)는 아래 <표2>와 같이 세분화된 자료를 제시하며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학과별 합격률		a과	b과	c과	d과	e과	f과	합계
지원자	남성	825	560	325	417	191	373	2691
	여성	108	25	593	375	393	341	1835
합격자	남성	512	353	120	138	53	224	1400
	여성	69	17	202	131	94	209	722
합격률	남성	62.1%	63.0%	36.9%	33.1%	27.7%	60.1%	52.0%
	여성	63.9%	68.0%	34.1%	34.9%	23.9%	61.3%	39.3%
	전체	62.3%	63.2%	35.1%	34.0%	25.2%	60.6%	46.9%

<표2> 버클리대학 입학처 입학 자료

[가] 공동생활에서 타당한 측정법을 확립하려면 강제적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예컨대 건축분야에서 공통된 기준을 강요하려면 기업이 이를 따라주고 규율이 잡힌 노동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수치들은 설득을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된다. 숫자는 근대적 거버넌스*의 관료체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책 결정자들은 재량이 아닌 지표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지식체계는 이러한 정책 결정자들이 의사결정 기구를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근대적 관료주의 연구의 선구자 막스 베버에 따르면 관료주의의 본질은 기술이 지닌 힘이다. 이러한 힘은 계산의 정확성을 흐리게 하는 비합리적·감정적 요소를 배제한다. 역사학자 시어도어 포터는 우리 사회가 숫자를 얼마나 신뢰해왔는지 연구했다. 그 연구에 따르면 계량화 과정은 관료 행정의 발전 과정과 불가분하게 연관되어 있다. 행정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경우 법률적·정치적 이유로 의심을 사기 마련이었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끊임없이 자료를 수집해 이를 숫자 몇 개로 단순화시키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통계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 확대될수록 정부, 기업, 사회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치가 충돌하고 합의가 어려울수록 이러한 요소를 조종하는 수치와 기술이 높게 평가되기 마련이다. 수치와 기술은 최소한 겉으로 보기에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뜨겁게 논의되는 이슈가 통계학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로 전환될 수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 정부 기관, 기업, 시민 단체, 일반 시민 등이 긴밀한 상호 작용과 협력 체계를 형성하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해 나가는 방식.

[나] 17세기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지식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출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권자가 알아야 할 것은 단지 법이 아닙니다. 이전 시대와 다르게 새롭고 중요한 것은 주권자라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주권자에게 필요한 것은 법에 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사태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국가의

<뒷면에 계속>

실재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이 지식이 정확히 당시에 '통계학'이라고 불리던 것입니다. 어원상 통계학(statistics)은 국가(state)에 대한 지식, 즉 특정 시점에 국가를 특징짓는 힘과 자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에 대한 지식, 즉 전체 인구의 추정, 사망률과 출생률의 추정, 여러 범주에 속하는 개인들의 수를 파악하고 그들의 부(富)를 산정하는 일, 국가가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의 측정, 생산된 부의 산정, 순환하는 부의 산정, 무역수지의 산정, 세금 및 조세 효과의 측정 등이 모든 데이터가 이제 주권자가 알아야 할 지식의 본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법률의 내용이나 그것의 적용능력이 아닌 국가의 실재를 기술(記述)하는 기술적(技術的)인 지식들이 주권자의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국가가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을 기반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그 지식은 만약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 효과를 일부 상실하거나 예상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적들이나 경쟁자들은 인적자원, 부 등에 대한 원(原)자료를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질의응답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공개될 수 있고 공개될 수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제화도 필요합니다. 당시에 이것은 국가 이성의 명백한 일부로서 권력의 비밀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통계는 오랫동안 드러나서는 안 될 권력의 비밀로 여겨졌습니다.

<끝>